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김 두 섭** · 이 명 진***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제결혼 부부 중에서 이혼한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부부의 연령과 교육 같은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결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차이는 외국 출신 배우자의 성별과 국적에 따라 다르다.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차이는 남편이 외국 출신인가 아니면 부인이 외국 출신인가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외국 출신 배우자의 구체적인 출신 국가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징 중에서 연령과 학력의 상이성은 국제결혼의 결혼 안정성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령 상이성이 교육 상이성보다 결혼 안정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외국 출신 배우자의 성별과 출신국가는 사회인구학적 차이와 결혼 안정성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외국 출신 남편과의 국제결혼에 비해 외국 출신 부인과의 국제결혼의 경우에 연령과 학력의 상이성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외국 출신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동일한 경우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외국 출신 남편의 경우에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부인보다 높을 경우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핵심단어: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 상이성 지수, 결혼 안정성

I. 머리말

세계화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여러 나라 사이에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가나 관광객 같은 일시적 방문객 뿐만 아니라 장기적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자들이 증가하고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06-G). 혼인/이혼신고자료와 관련 문헌의 수집 및 정리과정에서 도움을 준 유삼현군에게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있다. 예를 들면 노동 이주자, 국제결혼 이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국가도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외국인 이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통계청, 2007b).

그 중에서 장기이주자 특히 앞으로 한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국제결혼은 그 빈도가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무려 9.2배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 전체결혼의 13.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00-2005년 기간의 국제결혼 연평균증가율은 무려 25.1%에 달한다(통계청, 2006, 2007b). 국제결혼은 다른 형태의 이주에 비해 그 사회적 영향과 함의가 크다. 언어, 예술, 문화, 교육,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심지어는 향후에 한국사회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제 이주(international migration)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거시적 수준)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많은 연구들이 국제이주의 원인과 결과를 거시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이주에 관한 유인 요인(push factor)과 배출 요인(push factor)에 관한 논의를 들 수가 있다(Lucas, 1981). 이 밖에도 지역에 따른 형태의 차이, 정치사회적 통합문제, 노동시장의 변화 같은 국제이주의 거시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이 많다(Richmond, 1981; Castles and Miller, 2003).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거시적 분석을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Edmunds, 2006). 이러한 미시적 연구들은 체제나 사회 전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주로 이주 과정에 관련된 여러 행위자의 태도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이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체성 형성, 이주자-정주자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 차이 같은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심층면접조사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자들의 결혼과정과 적응과정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김숙자, 1998; 강유진, 1999; 윤형숙, 2004a, 2004b; 이해경, 2005; 설동훈 외, 2005; 설동훈, 2006). 여성학적 입장에서 성의 상품화, 가정폭력 등 국제결혼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다(홍기혜, 2000; 박현정, 2004; 윤정숙·임유경, 2004). 아울러 통계청의 혼인 및 이혼신고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 국제결혼과 이혼의 증가추이와 배우자들의 특성을 국적별로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김두섭, 2006; Kim, 2007).

이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과정 및 이혼과 관련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이혼 사이에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통계청이 발표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혼인과 이혼신고의 전수자료(全數資料)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나이, 국적, 교육, 거주지 등 미시적인 수준인 개인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II. 이론적 틀과 자료

이 연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론적인 틀은 결혼과 사회계층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개인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 결혼의 성립과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Bowerman, 1964; Goode, 1966; Bumpass and Sweet, 1972).

어느 사회나 전통, 문화, 역사에 따라 나름대로의 결혼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배우자 선택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회의 수만큼 그 형태가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느 사회도 어떤 시대에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배우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한 배우자 선택은 결혼 당사자 자신이거나 가족, 친척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받기 마련이다. 이러한 규제는 곧 결혼 상대자간의 어떠한 형태의 결합(association)을 형성케 한다. 특히 그러한 규제가 계층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나 계층구조가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합은 일정한 유형을 보인다. 즉 <표 1>의 유형 1로 표시된 것처럼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할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녀지위 차이가 커질수록 결혼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일종의 선택적 결혼(assortative marriage)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Becker, 1974; Becker, 1981; Blau et al., 1993).

아울러 관련 연구들은 남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많이 다르다면 이들 사이에 결혼 자체도 성사되기 힘들지만, 결혼 이후 적응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상이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부부일수록 결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각한 긴장을 경험할 가

<표 1> 선택적 결혼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	중	하
남성의 사회적 지위	상	1	2	2
	중	2	1	2
	하	3	3	1

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이 결과적으로 결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Goode, 1966; Bumpass and Sweet, 1972).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사회인구학적 상이성(socio-demographic dissimilarity)이 결혼 유지의 가능성을 낮추고, 이혼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연령과 교육이 있다. 무엇보다도 연령 상이성은 생물학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몇 년 차이로 태어난 사람들도 전혀 다른 맥락에서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상이성도 자주 언급되는 요인이다. 교육은 많은 경우에 특정한 가치관과 기대를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가치관, 목표, 삶의 우선 순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유사할 경우, 남녀의 믿음과 태도가 일치할 가능성을 높고, 개인적인 매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umpass and Sweet, 1972; Levinger, 1976).

이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결혼의 추세와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국제결혼의 유형과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혼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 지속기간을 결혼 안정성을 의미하는 변수로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성별, 출신국가, 연령, 교육 등을 일종의 독립변수로 선택하고 시기별 변화를 살펴본다.

연구 자료로는 통계청의 혼인과 이혼신고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결혼과 관련한 정보로 결혼 당시의 연령, 혼인 경험, 결혼 날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이혼과 관련한 정보로는 이혼 당시의 연령, 이혼 사유와 과정, 이혼 당시의

자녀 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와 교육, 직업, 거주 지역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모든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을 한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잘려진(truncated)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료 자체가 국제결혼 부부 전체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이혼을 한 부부에 대한 결과라는 제한성을 지닌다. 그러나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한 추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 유일한 전수자료라고 볼 수 있다.

III. 분석결과

1. 국제결혼의 추이

한국인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던 통일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혼인이주가 이루어졌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김두섭, 2006). 한국인의 국제결혼이 뚜렷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그런데 1990년 중반 이후 국제결혼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국제결혼 자체는 두 번의 시점에서 큰 증가를 보인다. 즉 국제결혼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직후인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큰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IMF 경제 위기가 시작된 1997년을 기준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한국사회의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2002년을 전후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다만 2006년에는 국제결혼이 다소 감소하여, 39,690건을 기록하였다(Kim, 2007).

둘째, 이러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한국 남편과 외국 출신 부인(이하, 외국 부인) 사이의 결혼이다. 전체 국제결혼 중에서 1990년에 15% 미만에 불과하였던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 사이의 혼인이 2006년 들어서는 76%를 넘어섰다. 한편, 외국 출신 남편(이하, 외국 남편)과 한국 부인의 결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그리고 전체 국제결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외국 남편과 한국 부인 사이의 결혼은 1990년에 전체 국제결혼 중에서 약 86.9%를 차지하였으나 2006년의 점유

율은 약 23.9%에 불과하다.

셋째,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 사이의 결혼은 그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체 기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의 경우 199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1996년에 다소 감소하였고, 1999년 이후에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다시 급감하고 있다. 중국 부인과의 결혼이 2006년에 감소한 것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에게 방문취업을 새로이 허용한 것과 관련이 있다. 방문취업의 허용으로 인하여 굳이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이주할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6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근에 큰 변화를 보이는 국가는 베트남으로, 2000년 이후 베트남 부인과의 결혼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국 부인과 결혼하는 외국 남편의 대표적인 출신국가는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이다. 외국 남편과 한국 부인 사이의 결혼 추세에서 주목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남편과 한국 부인의 결혼은 비록 2002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거듭하였으나 2006년에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김두섭, 2006; Kim, 2007).

2.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추이

1) 이혼 건수와 결혼지속기간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만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다. <표 2>는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추이를 국적별로 보여준다. 외국 부인의 경우는 1995년에 전체 건수가 269건이고, 외국 남편의 경우는 1995년에 1,721건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의 이혼 비율이 외국 남편과 한국 부인의 이혼 비율을 앞지르고, 2006년에는 그 비율이 63.9%에 이르게 되었다.

이혼한 부부의 출신국가별 추이는 국가별 국제결혼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외국 부인의 경우는 2000년까지는 일본 부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중국 부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2>에서 외국 남편의 경우를 보면, 외국 부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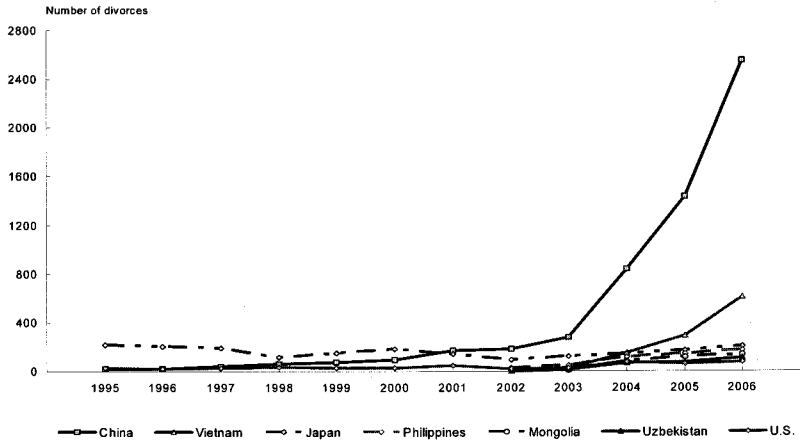
<표 2>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추이, 1995-2006

		단위(이혼 건수)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269	320	462	401	583	1,611	2,444	4,010	
중국	19	96	170	181	275	841	1,431	2,551	
베트남	-	-	-	7	28	147	289	610	
일본	215	180	140	97	121	145	168	202	
필리핀	-	-	-	29	44	112	142	171	
몽골	-	-	-	10	6	83	116	132	
우즈베키스탄	-	-	-	3	16	67	75	105	
미국	25	28	45	21	27	74	62	73	
기타	10	16	107	53	66	142	161	166	
외국 남편의 출신국가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1,721	1,369	1,407	1,465	1,581	1,789	1,834	2,270	
일본	1,344	1,114	1,097	1,160	1,218	1,351	1,343	1,525	
미국	275	199	195	180	226	264	219	238	
중국	44	31	46	51	36	45	124	319	
파키스탄	-	-	-	3	9	16	25	33	
캐나다	-	2	9	7	20	11	21	30	
독일	-	5	8	10	9	17	16	-	
기타	58	18	52	54	63	85	86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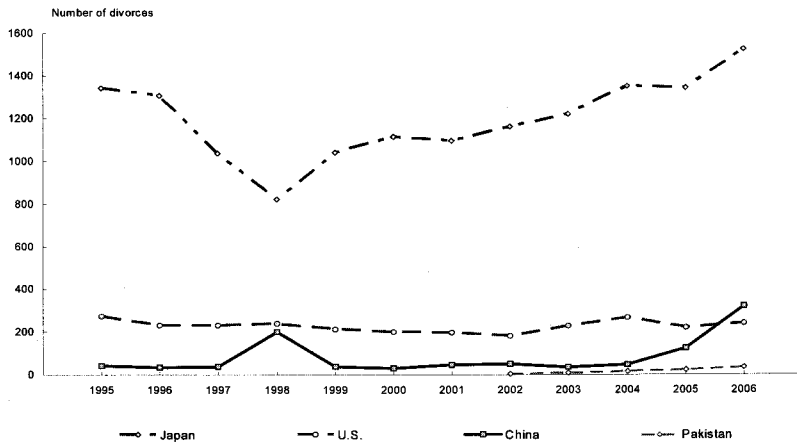
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 남편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남편이 2006년을 제외한 전체 기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중국 남편의 비율이 1998년에 한 차례 급증하고, 파키스탄 남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또한 국제결혼의 지속기간이 외국 출신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부인이 외국 출신일 경우는 결혼지속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예외인 경우는 미국 부인과 일본 부인의 경우이다. 이들 미국 부인과 일본 부인의 경우는 대체로 지속기간이 길다. 중국 부인의 경우는 점차 지속기간이 줄어서 2005년에는 미국이나 일본 부인의 경우에 비해 약 1/4에 그치고 있다. 한편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부인의 경우는 결혼지속기간이 20개월 미만으로 집계되었으며, 베트남 부인의 경우는 2005년에 10.6개월에 불과하였다.

<그림 1> 이혼한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별 분포, 1995-2006



<그림 2> 이혼한 외국 남편의 출신국가별 분포, 1995-2006



반면에 외국 남편의 경우는 외국 부인의 경우에 비해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큰 변화를 보이고 않는다. 오히려 결혼지속기간은 1995년 이후 10년 동안 다소 증가 하였다.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1995년에 전체 평균이 57.3개월이었고, 2005년에 전체 평균이 68.4개월이다. 가장 지속기간이 긴 경우는 미국 남

<표 3>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지속기간, 1995-2005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	단위(개월)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69.8	44.6	40.2	30.4	33.7	26.5	28.0
중국	31.9	24.0	24.3	15.9	19.2	22.2	23.9
베트남	-	-	-	-	-	10.1	10.6
일본	78.1	52.7	68.0	57.3	72.1	64.2	87.2
필리핀	-	-	-	-	-	19.1	17.3
몽골	-	-	-	-	-	8.8	12.9
우즈베키스탄	-	-	-	-	-	10.3	13.7
미국	62.3	60.1	69.0	86.6	82.6	77.1	104.4
외국 남편의 출신국가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57.3	67.4	65.6	65.9	67.5	72.5	68.4
일본	53.3	64.2	63.4	62.6	65.7	71.0	68.5
미국	68.9	75.7	71.2	78.6	72.9	86.3	86.6
중국	68.6	117.9	85.4	91.2	106.7	58.9	44.0

편과 한국 부인의 경우로, 2005년에 이들 부부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86.6개월이다. 가장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는 중국 남편과 한국 부인의 경우로, 2005년에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44.0개월로 집계되었다.

2)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표 4>에는 2004년과 2005년에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이 출신국가별로 제시되어 있다. 외국 부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30-39세 범주의 비율이 가장 높다. 전체 중에서 약 29.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15-24세로 약 26.7%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분포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 부인의 경우는 30-3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15-24세의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중에서 약 77.7%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부인의 경우도 그 분포가 대체로 유사하며, 15-24세 혹은 25-2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부인과 미국 부인의 경우는 이들 국가 출신 부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다. 일본 부인의 경우 30-39세 비율이 42.5%로 가장 높고, 미국 부인의 경우 40세 이상이 4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

<표 4>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분포, 2004-2005

단위(백분율, 이혼 건수)

외국 부인의 출신 국가	외국 부인의 나이					이혼 건수
	15-24	25-29	30-39	40+	전체	
전체	26.7	25.3	29.4	18.6	100.0	4,055
중국	18.2	25.1	33.7	23.0	100.0	2,272
베트남	77.7	12.4	7.5	2.4	100.0	436
일본	8.0	18.2	42.5	31.3	100.0	313
필리핀	35.8	32.3	26.4	5.5	100.0	254
몽골	39.2	43.7	15.6	1.5	100.0	199
우즈베키스탄	39.4	35.2	19.0	6.4	100.0	142
미국	4.4	15.4	29.4	40.8	100.0	136

외국 남편의 출신 국가	외국 남편의 나이					이혼 건수
	15-24	25-29	30-39	40+	Total	
전체	1.3	5.4	21.3	72.0	100.0	3,623
일본	0.3	2.5	13.9	83.3	100.0	2,694
미국	4.8	15.7	38.5	41.0	100.0	483
중국	1.8	7.7	39.1	51.4	100.0	169
파키스탄	7.3	24.4	51.3	17.0	100.0	41
캐나다	3.1	15.6	40.7	40.6	100.0	32

남편의 경우는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전체적으로 4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2.0%이다. 일본 남편의 경우는 83.3%이고, 미국 남편 41.0%, 캐나다 남편 40.6%, 그리고 중국 남편 51.4%로 나타났다.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도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표 5>에 나타난 교육수준 분포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대체로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 비해 부부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부인이 외국인인 부부의 경우는 남편이 외국인인 부부의 경우에 비해 부부간 교육수준이 차이가 배우자의 출신국가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일본 부인의 경우,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과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베트남 부인의 교육수준은 한국 남편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반면에 필리핀,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한국 남편에 비해 교육수준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부인과 필리핀 부인의 경우는 한국 남편에 비해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오히려 높다.¹⁾

1) 남편들의 직업 분포도 외국 출신 배우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남편 직업수준은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에 비해 대체로 낮은 편이다.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남편의 전문직/사무직 비율이 21.5%이지만,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남편의 전문직/사무직 비율이 38.0%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 부인의 경우, 출신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표 5>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교육수준, 2004-2005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	외국 부인의 교육수준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			이혼 건수
	중졸	고졸	대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39.0	44.2	16.8	27.5	54.5	18.0	2,175
중국	48.9	43.7	7.4	31.3	57.1	11.6	417
베트남	64.6	34.1	1.3	30.7	56.4	12.9	244
일본	9.0	56.4	34.6	14.3	48.4	37.3	251
필리핀	20.8	49.6	29.6	37.9	47.4	14.7	193
몽골	12.5	49.2	38.3	21.8	62.7	15.5	138
우즈베키스탄	6.3	53.5	40.2	10.8	52.2	37.0	134
미국	5.2	35.1	59.7	2.2	33.6	64.2	136
외국 남편의 출신국가	외국 남편의 교육수준			한국 부인의 교육수준			이혼 건수
	중졸	고졸	대졸	중졸	고졸	대졸	
전체	9.2	61.8	29.0	15.1	64.4	20.5	3,192
일본	9.7	69.6	20.7	14.3	71.8	13.9	2,299
미국	2.8	43.5	53.7	16.7	46.2	37.1	472
중국	28.0	50.6	21.4	29.2	49.7	21.1	161
파키스탄	5.1	38.5	56.4	15.0	55.0	30.0	40
캐나다	3.3	20.0	76.7	3.2	16.1	80.6	31

3.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회인구학적 상이성(socio-demographic dissimilarity)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특성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 부인의 출신국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인이 외국 출신인가 아니면 남편이 외국 출신인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남편일 경우, 대다수 부인이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그 특성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외국 남편의 경우는 보다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부부의 특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편의 직업이 농민이거나 단순노무직 비율이 각각 6.3%, 4.7%에 불과하다. 반면에 베트남인 부인과 필리핀인 부인의 경우 남편의 직업이 농민이거나 단순노무직 비율이 각각 34.7%, 29.9%에 이른다. 한편 외국 남편의 경우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그 구성비가 각각 3.2%, 2.2%로 나타나고, 중국은 12.1%, 파키스탄은 5.7%로 집계되었다.

1)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의 경우

먼저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의 연령 및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 <그림 3>과 <그림 4>는 이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x축은 연령 혹은 교육 상이성 지수를 의미하고, y축은 결혼지속기간(개월)을 의미한다. 각 점은 특정 시점에 특정 출신 국가의 부인과 한국 남편 간에 이혼이 이루어진 부부의 두 변수 평균값을 나타낸다.²⁾

연령 상이성과 결혼지속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째, <그림 3>에 제시된 것처럼, 연령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은 기본적으로 음(negative)의 관계를 나타낸다. 연령 격차가 클수록 결혼지속기간이 짧다. 둘째, 이러한 상이성은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연령 격차가 작은 일본인 및 미국인 부인과의 결혼은 지속기간이 길다. 반면에 연령 격차가 큰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인 부인과의 결혼은 지속기간이 짧다. 셋째, 이러한 관계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특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과 일본 부인과 결혼의 경우 연령 격차가 작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오랜 결혼지속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2004년과 2005년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출신 부인의 경우에 연령 격차가 가장 크고, 결혼지속기간도 가장 짧다.³⁾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도 대체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 상이성의 경우에 비해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4>에 제시된 것처럼, 이 관계 역시 외국 부인의 출신 국가별로 매우 다르다. 미국이나 일본 부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교육 격차가 작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이 길다.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부인과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 교육 격차가 클수록 결혼지속기간이 짧다. 반면에 다른 국가 출신 부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부인의 경우는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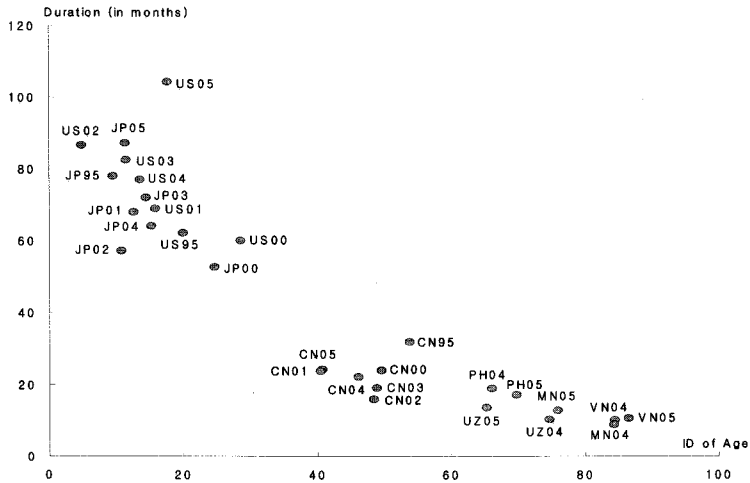
2) 연령 상이성 지수는 남편과 부인의 7개 연령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백분율 차이의 절대값을 반으로 나눈 값이다. 교육 상이성 지수는 남편과 부인의 5개 교육 수준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백분율 차이의 절대값을 반으로 나눈 값이다. 상이성 지수(ID)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ID = \sum |p(h,i) - p(w,i)|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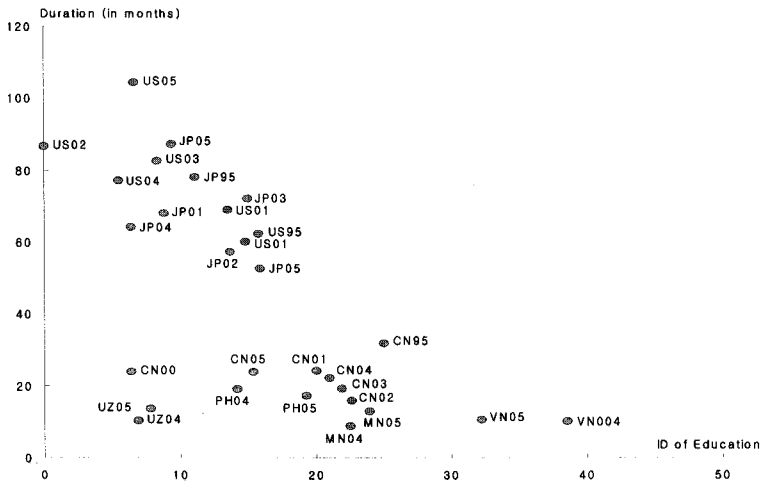
여기서 h, i 는 남편의 집단이고 w, i 는 부인의 집단을 의미한다.

3) <그림 3>부터 <그림 7>까지 사용된 국가별 식별 기호는 다음과 같다: CN(중국); JP(일본); MN(몽골); PH(필리핀); US(미국); UZ(우즈베키스탄); VN(베트남).

<그림 3>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별 연령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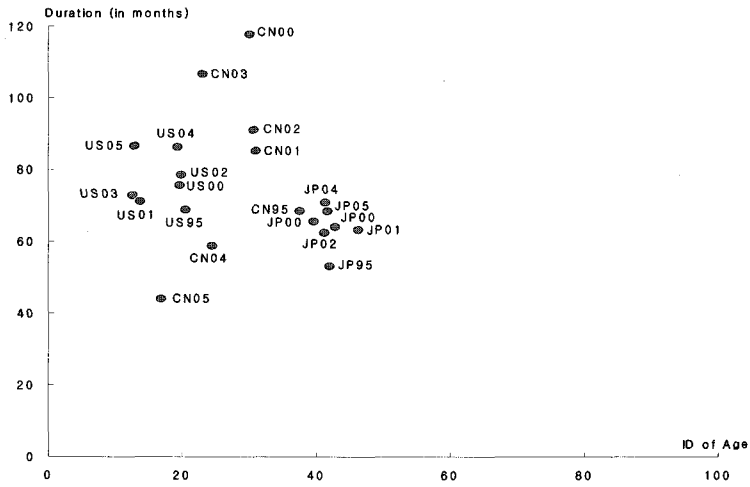
<그림 4>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별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199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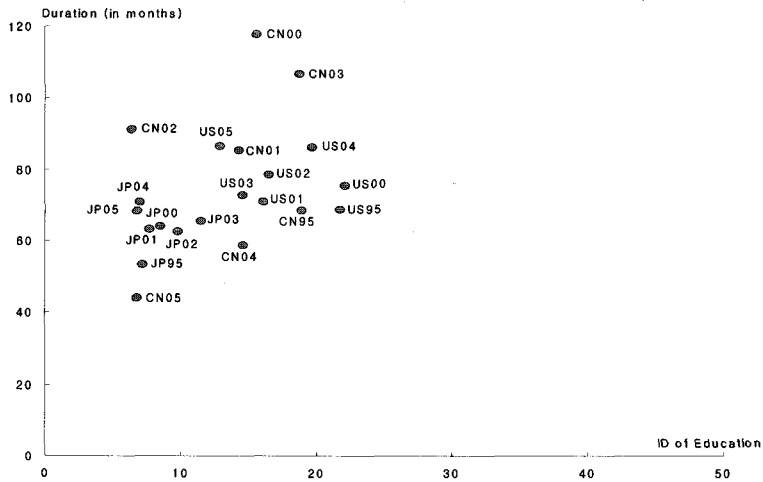
2) 한국 부인과 외국 남편의 경우

<그림 5>는 외국 남편과 한국 부인의 연령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나 시점과 상관없이 연령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에 특정한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

<그림 5> 외국 남편의 출신국가별 연령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1995-2005



<그림 6> 외국 남편의 출신국가별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1995-2005



다. 다만 한국 여자가 일본 남편이나 미국 남편과 결혼한 경우에 연령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일본 남편의 경우에는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고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에 미국 남편의 경우에 연령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고, 결혼지속기간이 길다. 중국 남편의 경우에

는 시기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다.

〈그림 6〉은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 남편의 경우 교육 상이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외국 남편의 경우에는 외국 부인과의 경우와는 달리 연령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상이성이 결혼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외국인 배우자가 남편인가 부인인가에 따라 국제결혼의 성격이 전혀 다를 것이다. 이것은 한국 부인의 외국 남편이 대체로 외국 부인의 한국 남편보다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지속기간

이 연구에서는 이혼 부부의 개인적 특성과 결혼지속기간 사이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앞에 제시된 그림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결혼지속기간에 대한 일종의 요약지수를 이용한 분석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그러한 관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6〉은 이혼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결혼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외국 출신 배우자가 부인인가 아니면 남편인가를 구분하였다. 둘째, 결혼지속기간이 매우 짧고,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 필리핀, 몽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부인의 경우를 별도의 표로 작성하였다.⁴⁾ 이를 통해 요약지수를 통한 분석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회인구학적 상이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단순히 부부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남편과 부인의 어느 쪽 교육수준이 높은가를 구분하고 있다. 셋째,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한국인 부부의 경우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외국 부인의 경우에는 대체로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동일할 경우(동질혼, homogamy)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아울러 대졸 한국 남편과 고졸 외국 부인 그리고 고졸 한국 남편과 대졸 외국 부인의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4) 이혼 부부의 연령조합에 따른 평균 결혼지속기간도 계산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배우자 출신국가에 따라 부부의 연령편차가 심하여 이를 표로 표시하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아울러 외국 남편의 경우에는 일본을 제외한 나라의 경우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전체와 일본 출신 남편과 결혼한 경우만을 집계하였다.

<표 6> 이혼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결혼지속기간, 2004-2005

단위(개월, 사례수)

교육수준		외국 부인			교육수준		한국 부인		
		대졸	고졸	중졸			대졸	고졸	중졸
한국 남편	대졸	45.7 (332)	30.3 (225)	11.8 (106)	외국 남편	대졸	64.4 (474)	70.5 (377)	67.8 (53)
	고졸	23.0 (197)	25.6 (1,075)	18.0 (685)		고졸	48.7 (159)	68.4 (1,531)	79.3 (238)
	중졸	18.1 (77)	27.6 (290)	25.7 (612)		중졸	21.4 (10)	49.7 (115)	96.9 (163)
교육수준		필리핀, 몽골, 우즈베크 부인			교육수준		한국 부인		
		대졸	고졸	중졸			대졸	고졸	중졸
한국 남편	대졸	17.2 (71)	12.4 (40)	3.0 (2)	일본 남편	대졸	64.2 (190)	64.7 (247)	77.4 (29)
	고졸	15.3 (88)	13.1 (178)	14.6 (27)		고졸	51.6 (114)	66.9 (1,290)	70.7 (162)
	중졸	14.7 (32)	13.1 (59)	13.0 (51)		중졸	24.8 (8)	52.4 (92)	100.6 (120)
교육수준		한국 부인							
		대졸		고졸		중졸			
한국 남편	대졸	11.8 (30,374)		137.3 (24,260)		184.0 (1,776)			
	고졸	87.6 (9,764)		132.3 (107,053)		182.0 (20,306)			
	중졸	110.8 (1,069)		135.4 (15,509)		212.3 (45,193)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부인의 경우는 동일한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 남편의 경우에는 동질혼보다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부인의 교육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대체로 부인의 교육수준이 남편의 교육수준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일본인 남편과 한국 부인의 결혼도 이러한 전반적인 경향과 유사하다. 동일한 교육수준보다는 일본 남편의 교육수준이 한국 부인의 교육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길다.

<표 7>은 2004년과 2005년에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출신국가별 연령과 교

<표 7>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출신국가별 연령 및 교육수준 상관계수, 2004-2005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별 연령(교육수준)	연령		교육수준	
	한국 남편	한국 부인	한국 남편	한국 부인
전체	0.64**		0.39**	
중국	0.81**		0.31**	
베트남	0.27**		0.25**	
일본	0.78**		0.50**	
필리핀	0.25**		0.38**	
몽골	0.46**		0.35**	
우즈베키스탄	0.51**		0.39**	
미국	0.87**		0.51**	
외국 남편의 출신국가별 연령(교육수준)	연령		교육수준	
	한국 남편	한국 부인	한국 남편	한국 부인
전체		0.73**		0.51**
일본		0.57**		0.45**
미국		0.83**		0.56**
중국		0.71**		0.62**
파키스탄		0.39*		0.13
캐나다		0.76**		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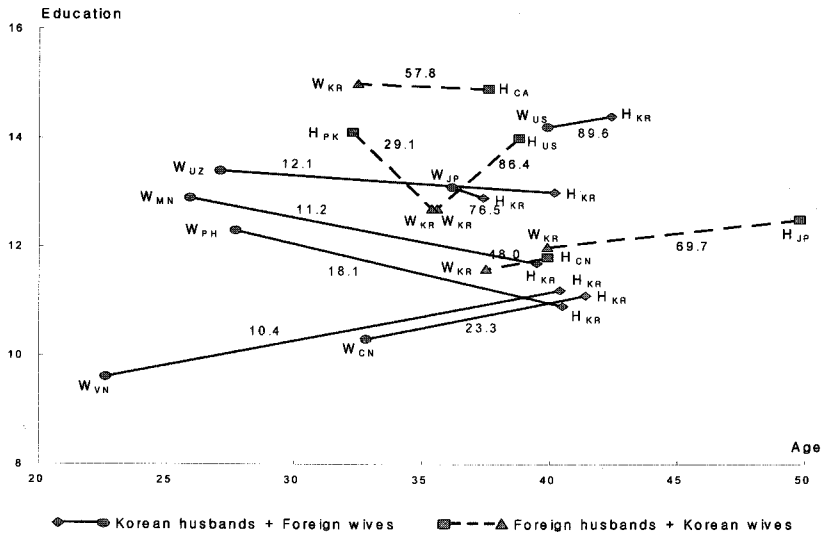
주: * p < 0.05; ** p < 0.01.

육수준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먼저 외국 부인의 경우에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국제결혼 부부는, 상대적으로 부부의 연령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 부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베트남 부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 상관계수가 0.27, 교육 상관계수 0.25이고, 필리핀 부인과 결혼한 경우에는 연령 상관계수가 0.25, 교육 상관계수가 0.38로 나타났다.

외국 남편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낮은 파키스탄 남편과의 국제결혼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러한 유형의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연령 상관계수는 0.39로, 교육 상관계수는 0.13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혼지속기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부부의 연령 및 교육 거리 지수(D)를 측정하였다.5) <그림 7>에는 부부의 연령 및 교육 거리와 결혼지속기간과의 관계가 제시

<그림 7> 연령 및 교육 거리 지수와 결혼지속기간, 2004-2005



되어 있다. 이 그림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부부 사이의 연령 및 교육 거리가 짧을수록 결혼지속기간은 길다. 이 그림에서 한국 남편과 미국 여자, 그리고 미국 남편과 한국 부인 사이의 연령 및 교육 거리가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각각 89.6개월과 86.4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거리가 멀수록 결혼지속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 사이의 결혼으로, 평균적으로 10.4개월에 불과하다.

둘째, 이러한 관계는 배우자의 성별, 국적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에 비해 한국 부인과 외국 남편의 결혼지속기간이 길다. 한국 부인의 경우 외국 남편에 비해 연령과 교육수준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반면에 한국 남편의 경우 외국 부인에 비해 연령은 높으나, 교육수준은 외국 부인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남편의 교육수준은 중국, 베트남 출신 부인에 비해서는 높으나, 몽골, 필리핀 혹은 우즈베키스탄

5)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거리(D)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D = \sqrt{(Age_h - Age_w)^2 + (Edu_h - Edu_w)^2}$$

여기에서 age는 연령을, edu는 교육수준을 뜻한다.

<표 8> 이혼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에 대한 회귀분석, 2004-2005

	한국 남편 + 외국 부인		외국 남편 + 한국 부인	
	b	beta	b	beta
자녀수	13.97	0.15**	25.97	0.20**
남편의 연령	1.46	0.31**	2.95	0.49**
연령 차이	-0.35	-0.07*	-2.20	-0.29**
연령 차이 제곱	-0.03	-0.16**	-0.03	-0.08*
남편의 교육수준	0.22	0.02	0.78	0.03
교육수준 차이	0.23	0.02	0.91	0.03
교육수준 차이 제곱	-0.06	-0.04*	-0.09	-0.02
화이트 칼라 직업 (남편)	-2.32	-0.02	-6.94	-0.05**
부인 직업	3.56	0.03*	4.21	0.03
서울 거주	-3.24	-0.02	0.48	0.00
비대도시 거주	-3.50	-0.03*	1.51	0.00
선진국 출신 (외국인 배우자)	41.74	0.33**	10.80	0.05**
상수	-32.40		-71.53	
R2	0.29		0.18	
F ratio	109.47**		50.39**	
사례수	3,267		2,773	

주: 1) * p < 0.05; ** p < 0.01.

2) 화이트 칼라 직업(화이트 칼라=1, 기타 직업=0); 부인직업(취업=1, 미취업=0); 서울 거주(서울 =1; 비서울=0); 비대도시 거주(비대도시=1, 대도시=0); 선진국 출신(선진국=1; 기타=0).

부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앞서 언급된 각종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이 결혼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을 통해 개별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간의 국제결혼의 경우에, 외국 부인의 출신국가(선진국 여부)가 결혼지속기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한국 남편의 연령이다. 특히 이러한 연령은 부부연령격차의 자승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지속기간과 비선형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편이 부인보다 연령이 다소 높거나 동갑일 경우 결혼 지속 기간이 대체로 길다. 그러나 남편의 연령이 부인 연령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면 결혼지속기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른 일반적인 결혼의 경우처럼 자녀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 남편과 한국 부인의 경우는 한국 남편과 외국 부인의 경우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R^2 의 값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연령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남편이 부인보다 연령이 다소 높거나 동갑일 경우 결혼 지속 기간이 대체로 길어지나, 남편의 연령이 부인 연령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면 결혼지속기간이 오히려 짧아지는 비선형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수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남편의 직업 특히 화이트칼라 직업 여부와 남편의 선진국 출신 여부로 밝혀졌다.

IV. 토의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증하는 현상과 아울러 이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도 같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혼하는 국제결혼 배우자의 출신 국가도 다양하다. 예전에는 주로 중국, 일본 혹은 미국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다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특징, 특히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국 출신 배우자의 출신국가별 특징과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의 결혼과정 특히 이혼한 부부의 결혼 지속기간을 국가와 시기별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들의 결혼지속기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적 결혼과 결혼 지속이나 안정성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들 사이에 다양한 특징이 발견된다. 가장 주목할 점은 국제결혼 부부 중에서 남편과 부인중에 누가 한국인인가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편이 한국인일 경우,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부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결혼시장의 비대칭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부인이 한국인일 경우는 미국, 일본, 캐나다 남편과의 결혼은 한국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나 최근의 국제화 경향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국제결혼의 내용의 차이는 사회인구학적인 요인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몽골 부인과 한국 남편의 연령 차이는 11-17세에 이른다. 반면에 일본 남편-한국 부인 부부를 제외하고, 선진국 출신 남편과 한국 부인의 연령 차이는 매우 작은 경향을 보인다.

교육 차이도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다. 과반수가 넘는 중국인과 베트남 부인이 중졸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부분의 미국 부인은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이나 베트남 부인과 결혼한 대부분의 한국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 사이의 국제결혼이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부인과 필리핀 부인의 경우는 한국 남편에 비해 교육수준 특히 대학교 졸업자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외국 부인의 경우 연령 격차와 교육 격차는 결혼지속기간과 관련이 있다. 특히 연령 격차가 결혼지속기간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외국 남편의 경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외국 남편의 경우에 연령이나 교육 격차의 변화에 따라 특별한 결혼지속기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연령 격차는 결혼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편이 부인보다 연령이 다소 높거나 동갑일 경우 결혼 지속 기간이 대체로 길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인 배우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의 특성의 차이와 관련이 깊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이 남편인가 부인인가에 따라 결혼의 성격이 다르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점은 외국 남편의 경우 한국 남편에 비해 직업 지위가 높다는 것이다. 외국 남편 중 약 38.0%가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상위 정신노동 직업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 남편 중 약 21.5%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편이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 미만이다.

사실 교육이나 직업 같은 사회경제학적 요인은 사회적인 위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특히 남편의 교육이나 직업은 결혼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편의 교육이나 직업 지위는 가족 전체의 지위를 결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남편의 지위는 전체 가족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남편이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직업을 가질수록 결혼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

히 이러한 교육이나 직업의 효과가 사실은 남편의 경제적 수입 효과를 의미한다(Udry, 1961; Curtright, 1971; Bumpass and Sweet, 1972).

이 연구의 결과는 이혼한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격차와 결혼지속기간 사이에 나타난 관계가 사실 부부의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의 부인과 결혼한 한국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국제결혼 부부의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부부들은 종교나 문화 같은 개인적인 차이를 뛰어 넘어야 한다. 만약 국제결혼을 한 남편들의 경제적인 수입과 부부들의 생활수준이 낮다면 이러한 종류의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을 급증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배우자의 국적별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경우는 이들 부부의 생물학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와 동시에 경제적인 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분야에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직업, 종교 같은 보다 심층적인 자료가 수집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숙자 (1998) “한국 남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涉外혼인 실태와 그 대책” 《가족법 연구》 12: 93-137.
-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 폭력상담소, 1-34.
- 설동훈 (2006) “국민 민족 인증: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보고서.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미

- 래인력연구원.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보고서.
- 윤정숙·임유경 (2004) “성별화된 이주 방식으로의 국제결혼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필리핀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형숙 (2004a)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321-349.
- _____ (2004b)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움 발표 논문.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통계청 (2006)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7a) 《2006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 _____ (2007b)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 황정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정책개발원 내부자료.
- 홍기혜 (2000)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Becker, Gary S. (1974) “A Theory of Marriage” pp. 299-344 in *Economics of the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edited by Theodore W. Schultz,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nard, Jessie (1966) “Marital Stability and Patterns of Status Variab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8: 421-439
- Blau, Peter M., Terry C. Blum, and Joseph E. Schwartz (1983) *Crosscutting Social Circles: Testing a Macrostructural Theory of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Bowerman, Charles E. (1964) “Predication Studies” pp. 215-46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edited by Harold T. Christensen,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 Burnpass, Larry L. and James A. Sweet (1972) “Differentials in Marital Instability: 197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754-766.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Third Edition,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 Curtright, P. (1971) "Income and Family Event: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291-306.
- Udry, J. Richard (1966) "Marital Instability by Race, Sex, Education, and Occupation Using 1960 Census Dat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September): 203-209.
- Edmunds, June (2006) "Migration Studies: New Directions?" *Ethnicities* 6 (4): 555-564, Sage.
- Goode, Williams J. (1966) "Family Disorganization" pp. 479-552 i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edited by Robert K. Merton and Robert A. Nibset,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Inc.
- Kim, Doo-Sub (2007) "The Ris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Divorce in Contemporary Korea" *Population and Society* 3(1): 1-37.
- Levinger, George (197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21-47.
- Lucas, R. E. B. (1981) "International Migration: Economic Causes, Consequences, Evaluation and Policies" in *Global Trends in Migration*, edited by Mary M. Kritz et al., New York: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
- Richmond, Anthony H. (1981) "Immigrant Adaptation in a Postindustrial Society" in *Global Trends in Migration*, edited by Mary M. Kritz et al., New York: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of New York.

[2007. 9. 15 접수 | 2007. 11. 7 채택]

Spouse Dissimilarity and Marital Stability of Divorced Couple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Doo-Sub Kim · Myoung-Jin Lee

This study explores the patter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ivorced couples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effect of dissimilarity between husband and wife on the duration of marriage of divorced couples. It examines whether the difference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married couples are linked to different process within their relationships and duration of marriage. Attention is focused on couple's age and education. Micro-data from divorce registration for the period of 1995-2005 are utilized. Results of analyses reveal the following. First, married couples may have different responses to dissimilarity between the partners according to the combination of nationality of the couples. This indicates that cross-border marriage does not represent the same type of union in different societies or cultures. Second, both dissimilarities of age and education show negative impacts on the marital duration of the couples with foreign wives,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its pattern. Age dissimilarity displays higher impacts on the duration. Third, the result also indicates that the contribution of dissimilarity of age and education on marital duration is relatively small among the couples with foreign husbands.

Key Words: international marriage, foreign spouse, index of dissimilarity, divorce, marital duration